

2020서울시복지재단
공유복지분과모임

연대BOOKS

사람책 모.기

- 새벽을 열었던 우리의 뒷이야기



연대복스에게 묻는다!

- 연대복스를 통해 내 업무/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 올해 내가 업무에서 잘했다고 생각한 사례
- 올해 업무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례 (여기서 얻은 교훈은?)
- 업무를 하면서 (혹은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대복스'에 꼭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단 한 가지 적는다면?

열정계명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연대복스란?

연대복스

기회

무한 성장할수있는

이다.

멤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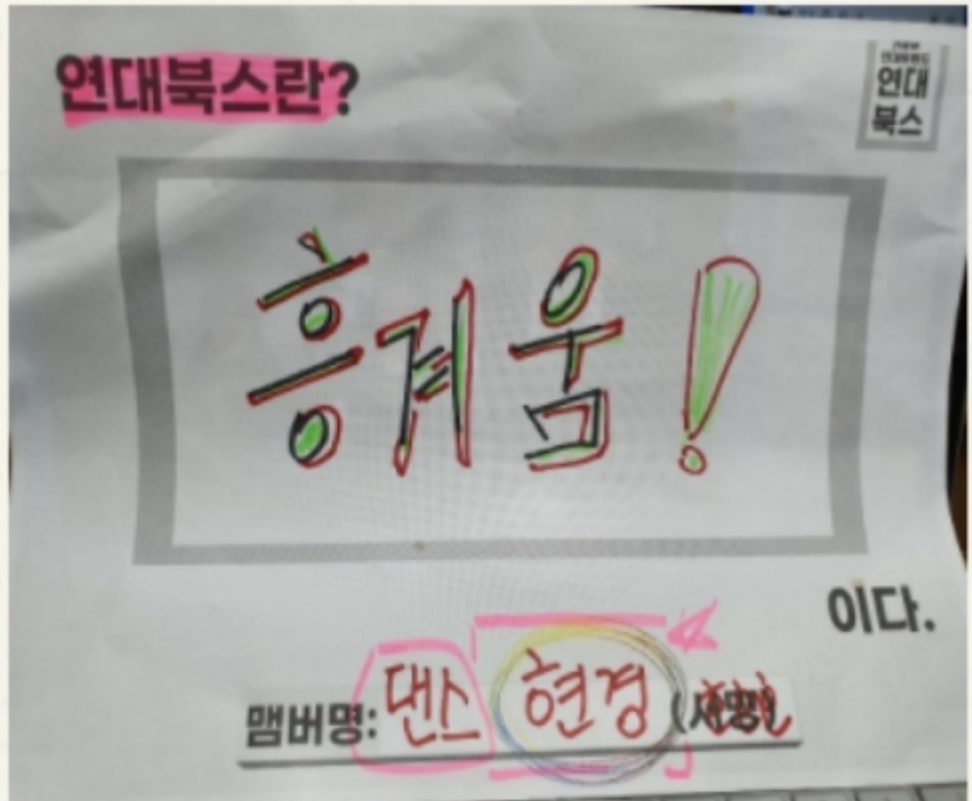
열정계명(사) (서명)

댄스현경



비영리컨설팅

웰컴



드소 정선



한국모금가협회

연대복스란?

연대
복스

♡
맛집
사냥

삶에 힘이 되고 좋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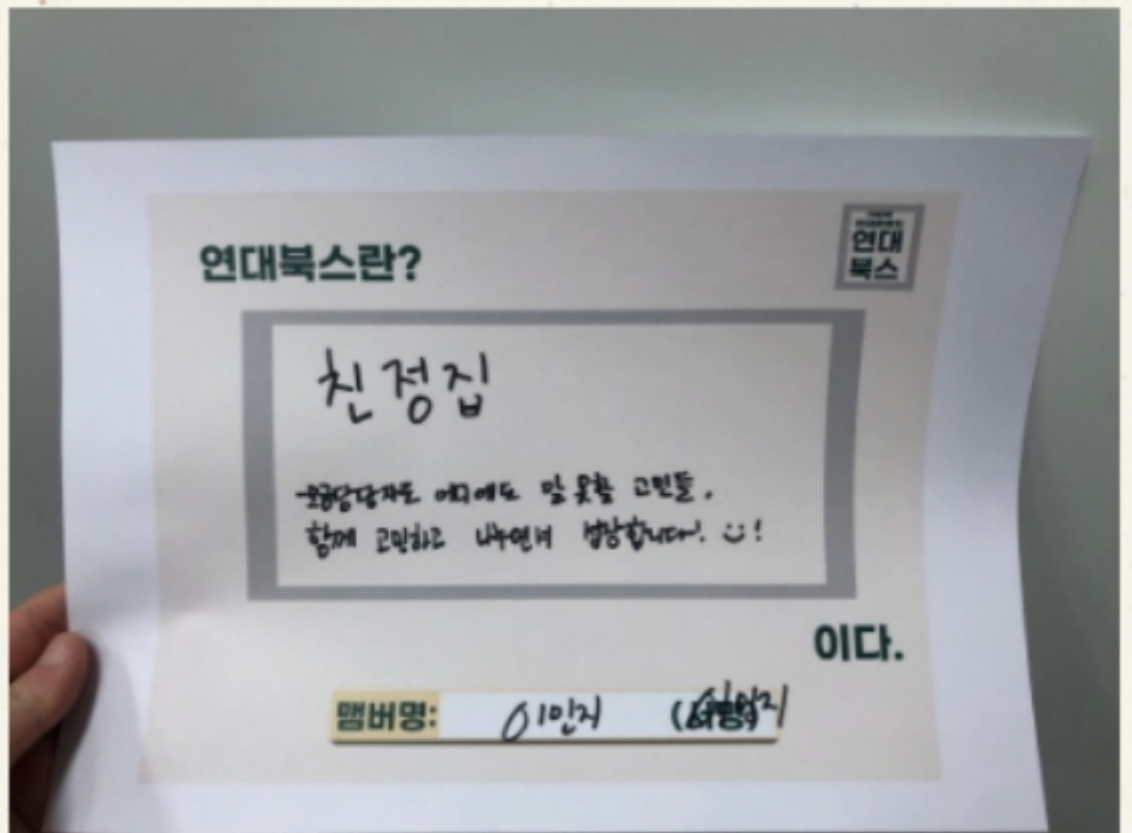
이다.

멤버명: 드소정선 (서명)

여운민지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도전태준



동문장애인복지관

너에게 권한다!
연대북스, 꼭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연대북스에 경험되어지는 유익함을
너에게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토리선아



수어이야기

연대복스란?



보따리

정성껏 싸맨 개나리보쌈 같아요.
이 보따리는 무한한것들을 품고
있답니다

이다.

멤버명:

구신아 (구신아)

함께누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너에게 권한다!
연대박스, 꼭 함께 해야 하는 이유!

현장에서 드는 고민으로 답답하다면
연대박스를 통해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될 거라 생각해요.

현장의 고민과 배움을 나누고,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 이 예 나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연대복스란?

연대
복스

연대경험의
첫 걸음!!!

이다.

멤버명:

강예나 강예나

불꽃선영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연대복스란?

NEW
COMING
연대
복스

내 가장
연애는 너

샌드위치



이다.

멤버명:

불꽃선영




진정명희



노트담복지관

연대복스란? 연대복스

산타클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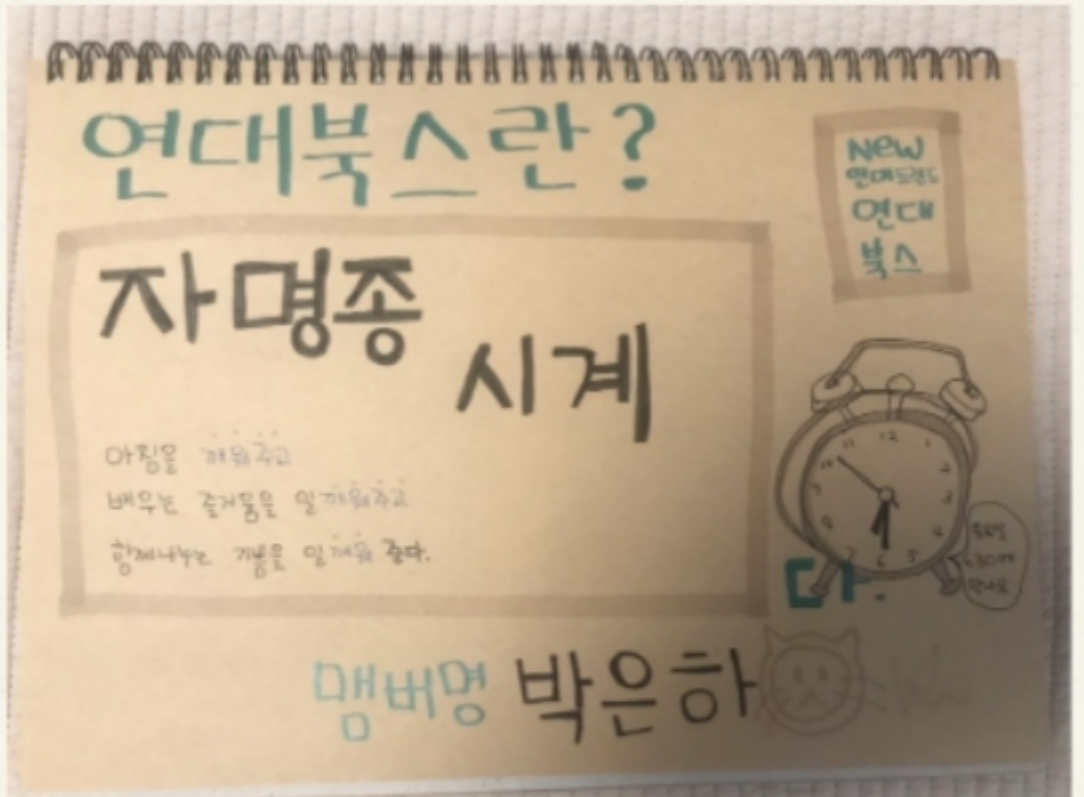

이다.

멤버명: 어명희 (서명)

춘기 은하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김정아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너에게 권한다!
연대북스, 꼭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모금, 후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시선을
공유함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비전인환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연대복스란?

연대복스

마중물

이다.

멤버명: 정{비전인환} (서명)

A graphic design for a social welfare center. It features a grey background with a white-bordered box containing the handwritten Korean text '마중물' (Ma-jung-mul, meaning 'water for the weary'). Above the box is the text '연대복스란?' (What is Yonsei Box?). To the right of the box is a small logo with the text '연대복스'. Below the box, the text '이다.' (is.) is written. At the bottom, a yellow box contains the text '멤버명: 정{비전인환} (서명)', where '정' is the name, '{비전인환}' is the name in a stylized font, and '(서명)' indicates it is a signature.

열정계명

1. 연대북스를 통해 내 업무/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생각하는 깊이가 넓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책을 읽으면서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고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책은 인사이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각자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것으로 적용하는 스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2. 올해 내가 업무에서 잘했다고 생각한 사례

첫 번째, 기부자들과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냥 단독방이 아닌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기부자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7명이 모였습니다. 비록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뜻을 밝히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지금 이 방에서는 복지관 소식뿐만 아니라 일반 뉴스소식 및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랜선바자회입니다. '랜선 위에 합선'이란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주문 후에 출에서 비대면으로 수령해가는 방법으로 했고, 택배를 원할 경우 택배요금 받고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1단계로 내려가 5명 이하로 보시고 구매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에 코트를 받았는데 저렴하고 질이 좋으며 구매자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펀딩입니다. 오마이컴퍼니에서 회, 카카오톡이가치에서 3회(진행중 포함) 하였습니다. 비대면 모금이 중요해지면서 온라인 플랫폼들이 더욱더 빛을 발했습니다.

3. 올해 업무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례 (여기서 얻은 교훈은?)

5월 정기기부 집중요청기간입니다. 한 달 내내 포스터 들고 정기기부 요청 다녔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상가는 대부분 들어가서 요청했습니다. 정말 50건 정도 요청 하면 1건 정도 해주셨습니다. 정기기부요청을 실패하면서 내 안에 정기기부요청에 대한 동기부여와 명분에 대해 몽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쩔때 사장님 인상보고 안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요청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이라 돕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힘도 났습니다. 정기기부 요청 다니는 한 달간 여러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얼굴로 판단하면 안됨. 기부요청을 받지 못해서 기부하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음)

4. 업무를 하면서 (혹은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여러 가치가 있지만 지금은 '정직'입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정직'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대중 넘기고 쉽게 쉽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어렵더라도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정직하려고 합니다. 물론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놓치고 갔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잘 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대BOOKS'에 꼭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단 한 가지 적는다면?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책을 읽는다는건 엄청난 일입니다. 책을 쓴 사람의 모든 것을 단 돈 1-2만원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과 강사님들을 만나서 의견을 교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댄스현경

1. 연대북스를 통해 내 업무/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답이 아니라도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며 각자의 다양한 생각을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역시 사랑중심으로 사람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 올해 내가 업무에서 잘했다고 생각한 사례

부족하지만 현장 동료들의 질문과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해 주는 역할이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그러나 '일'로 여기지 않고 매우 매우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3. 올해 업무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례 (여기서 얻은 교훈은?)

강의와 컨설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라,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한다면 좀더 현장 친화적인 사례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부족했다는 점! 그래서 더욱 분발하려고 합니다.^^

4. 업무를 하면서 (혹은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저는 항상 현장중심, 동료중심, 사람중심, 관계중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정진하렵니다.

5.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대북스'에 꼭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단 한 가지 적는다면?

늦게라도 함께 하는 이 길이 참 즐겁다!!!

벗뜨!!!!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만 일단 일어나면 그 뿌듯함이 일주일 간다.

든솔정선

1. 연대북스를 통해 내 업무/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다양한 주제의 책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독서라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연대북스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단순히 책 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 관계, 나눔, 연대에 대한 생각이 더 넓어지고 좋은 경험이 되었다.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사람 때문에 또 힘을 낼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연대북스는 나에게 힐링이다.

2. 올해 내가 업무에서 잘했다고 생각한 사례 없습니다.

3. 올해 업무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례 (여기서 얻은 교훈은?)

올해 업무보다는 다른 무언가 실패했다고 생각나는 건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내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겠다고 생각해본다.

4. 업무를 하면서 (혹은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살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누면서 사는 것이다. 경험이든, 경제적인 가치이든 내가 죽고 나서 가져갈게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한다.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배어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대북스'에 꼭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단 한 가지 적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연대북스'라는 맛집을 소개시켜주고 싶다. 이 맛있고 좋은 음식을 나누어서 좋은 사람들과 연대시켜주고 싶기 때문이다.

여운민지

1. 연대복스를 통해 **내 업무/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쌓여있는 행정업무, 늘어가는 일에 치이다 보니 어느 순간 사람을 보기 보다는 편하고 익숙한 것만 찾느라 “사람”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대복스를 통해 제가 모금가로서 왜 모금을 해야 하는지, 그 중심에 사람다움을 어떻게 반영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 올해 내가 **업무에서 잘했다고 생각한 사례**

올해는 알만 보고 달려왔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정리와 소통에 집중했습니다.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해 기부자와의 소통을 시작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셀프칭찬 마구 해주고 싶습니다!

3. 올해 업무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례 (여기서 얻은 교훈은?)**

방향 없는 달리기를 이어갔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모금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나 코로나19였습니다. 초반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부족해서, 이후에는 코로나19이후의 삶은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고민이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때때의 상황에 맞춘 모금은 지원했지만 방향이 얼마나 명확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당장 일시적인, 표면적인 지원 보단 그로인해 필요한 모금의 방향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려고 합니다!

4. 업무를 하면서 (혹은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진정성입니다. 모든 업무가 마친가지이겠지만 모금가로서 이 가치를 잃는 순간 모금가가 아닌 그저 ‘모금기술을 많이 아는 사람’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조차도 시간이 지날수록 퇴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금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진정성을 담지 않으면, 영혼 없는 페이퍼만 전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대복스'에 꼭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단 한 가지 적는다면?**

같은 조직에서 일한다고 모두가 동료는 아닌 것처럼, 같은 고민으로 연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연대복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전태준

1. 연대북스를 통해 내 업무/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첫째 동기 부여된 자발성이 가져다주는 파급력

워라벨을 외치며, 자기관리를 중시하는 요즘, 토요일 새벽 6시 30분이 웬 말이더냐!!! 어떤 이는 툭툭 부은 얼굴로, 다른 이는 씻지도 않은 얼굴로, 때론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운동을 하거나, 아이 옷을 갈아입히면서까지 모임에 참여하려는 의지라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둘째 내려놓음과 인정과 공감이 주는 선물 "관계"

내가 "알지 못하고, 부족이 많음"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런 이를 누구나 가볍게 보지 않고 이해해주며,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나란히' 서 주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 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빈자리 채워 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 고민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주기에 너무 감사하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느슨해질수록 더욱 끈끈하고 단단한 관계로 성장 할 수 있음을 배웠기에 감사하다.

셋째, 미래 인재 양성소 "연대북스"

미래시대에서 말하는 인재는 배우려는 태도와 유연함을 갖춘 사고와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아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내가 왜 배워야 하고,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미래의 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말한다.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경험을 배우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함에 있어 내가 왜 배워야 하며,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를 알려 준다.

2. 올해 내가 업무에서 잘했다고 생각한 사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비대면 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구축하고자 750만원의 사업비를 모금함.

3. 올해 업무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례 (여기서 얻은 교훈은?)

복지관 사업방향성 전환을 위한 과정(신규 비전 수립, 기관 SWOT 분석, PCP 실천을 위한 직필교육 실시)을 진행하면서 깨달은 것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직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과 목표를 이해시킨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업무를 하면서 (혹은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연대의 가치 및 네트워크의 영향력

5.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대북스'에 꼭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단 한 가지 적는다면?

연대북스에 경험되어지는 유익함을 너에게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토리선아

1. 연대복스를 통해 내 업무/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예약된 일정과 오로지 바깥 속에서 내 삶과 일 등의 흐름을 구분하여 여유로운 일과 즐기기가 좋아졌습니다.

2. 올해 내가 업무에서 잘했다고 생각한 사례

코로나로 비대면지원으로 변화되는 서비스 속에서 많은 변화를 상상하였는데, 비대면영상지원과 발송이라는 매체를 통한 업무의 새로운 방향 전환 속에서 또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십년지기 [양천해누리수어봉사단]이 1기와 2기, 3기가 함께 활동하는 봉사단으로 모여서 새 출발하였습니다.

3. 올해 업무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례 (여기서 얻은 교훈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릴 것이 많은데, 끝까지 쥐고 있다가 버리는 그 순간에 그동안의 생각이 나만의 착각이었다고 느끼는데 잠깐 허탈감이 들기도 합니다.

“인생 비정없이 살자! 후회없이 버리자!”

4. 업무를 하면서 (혹은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사람이 자체가 가지고 존재의 이유가 되어갑니다.

5.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대복스'에 꼭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단 한 가지 적는다면?

“이대로 좋습니다. as good as it gets”

그냥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사람들이라서 좋습니다.

어질현기

1. 연대복스를 통해 내 업무/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연대 복스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자원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얼마 되지 않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해야 할지 모르던 나에게 기준이 되어주고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알려 준 모임입니다. 연대 복스를 통해 단순히 후원자, 후원금(품)을 모금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과의 연대를 통해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올해 내가 업무에서 잘했다고 생각한 사례

연대복스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얻는 일이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 감사편지를 손 글씨로 써서 발송하거나 기관이 받는 주체에서 베푸는 주최로 생각 할 수 있도록 후원자 방문 시 작은 선물로 보답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

- 코로나 상황임에도 후원금 마련 ㅋㅋ (우리 기관의 주력 상품인 화장품을 판매해서 바자회와 비슷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3. 올해 업무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례 (여기서 얻은 교훈은?)

상사와의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다.

4. 업무를 하면서 (혹은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올해 절반 업무를 하면서 가장 크게 내가 흔들렸던 가치가 후원금 사용부 분이었다. 작년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후원자(처)는 왜 이 후원을 하는지, 이 후원금(품)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바라는지였다. 후원자(처)가 바라는 명목으로 투명하게 지출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싶었는데 기관의 경우 시설 장의 생각과 담당자의 생각이 달라 거기에서 오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나의 업무를 하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는 후원자(처)가 왜 후원을 하는지를 알고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하게 되었다.(투명성, 올바른 사용)

**5.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대복스'에 꼭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단 한 가지 적는다면?**

서로에게 유익한 울타리가 되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주변의 많은 지식들이 나를 위한 길, 가치, 생각을 만들어 업무에 도움이 되고 '나' 오롯이 사람을 위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살이의 가치를 알게 해 주는 것 같다.

함께 누리

**1. 연대복스를 통해 내 업무/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다양한 분야의 담당자들과 만나 현장에 대한 고민과 배움을 나누면서 처음의 열정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무엇이든 부딪치고 시도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2. 올해 내가 삶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연대복스에 참여하게 된 것! 업무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왜 해야하는지를 많이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담당자분들과 만나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고민과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3. 올해 업무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례
(여기서 얻은 교훈은?)**

더 많이 도전해보지 못한 것. 당장 해야하는 일들에 집중하다보니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를 해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잘 진행하는 것만을 생각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삶과 일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4. 업무를 하면서 (혹은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혼자만 살아갈 수 없고, 혼자서만 잘 일할수도 없기 때문에 함께, 그리고 협력하는 일이 업무에 있어서도 또는 살면서도 가장 의미있고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합니다.

**5.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대복스'에 꼭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단 한 가지 적는다면?**

현장에서 드는 고민으로 답답하다면 연대복스를 통해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될 거라 생각해요. 현장의 고민과 배움을 나누고,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연대복스가 가지는 연대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이예나

1. 연대복스를 통해 내 업무/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신이 가진 경험과 나눔, 아이디어, 귀한 자료들을 나누고 연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올해 내가 업무에서 잘했다고 생각한 사례

코로나로 많은 환경들이 바뀌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것” 자체가 올해 잘했던 일을 찾는다면 이 부분으로 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버티는 힘도 감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강의에서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 중 무료급식사업이 약 400명 어르신들 대상으로 규모가 큰 편이었습니다. 재가복지(사례관리)사업과 병행하기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물론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ㅎㅎ) 어르신들의 한 끼의 가치를 생각하며 올해 잘 버텨온 것이 감사하고 스스로에게 수고했다 말하고 싶습니다^^

3. 올해 업무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례

(여기서 얻은 교훈은?)

올해 초반 재가복지(사례관리)와 무료급식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 뵙고 만나겠다고 다짐했으나 실제 방문하고 만나기보다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눈 앞에 보이는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별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했으나 어르신과 함께 해나가고 달성한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행정도 중요한 부분이기엔 어르신을 만나는 것과 행정업무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한 점, 행정이나 단순 업무에 급급해 진짜 해야하는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는 점을 기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업무를 하면서 (혹은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사랑"입니다.

업무를 할 때도 살아 갈 때도 사랑을 모든 것의 본질의 시작점으로 두려고 합니다!

5.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대복스'에 꼭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단 한 가지 적는다면?

사회복지 현장 뿐 아니라 삶에서 연대, 나눔, 공유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블꽃선영

1. 연대복스를 통해 내 업무/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연대복스를 통해 나의업무에 달라진 점은 일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보다 나아가 방향을 찾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순히 후원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후원자 관리를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내 업무는 그냥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을 알고 후원자가 하는 기부, 지역 주민하는 봉사보다 가치있게 만들어줄수 있도록 하게 될 부분이 나에게 달라진 부분인 것 같다.

2. 올해 내가 업무에서 잘했다고 생각한 사례

올해 제가 업무에 잘한 것은 무엇일까? 계속 생각했다.

사례는 사실 많지는 않았다. 내가 맡은 이후 변명 같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지속으로 기존 계획했던 후원사업 전면 수정했고, 경제침체로 기업의 후원도 사실 많이 중단되었다. 그래도 하나 말하자면 주민리더를 발굴했다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 1명과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활동 및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많은 활동(녹색어머니회, 학교운영위원회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지역의 주민리더로 활동을 여부를 이야기 했을때 지역주민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통한 모금사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관련 사업을(코로나이기담, 복이왔네요, 추석선물전달프로젝트 등) 진행하였고, 나름 좋은 피드백이 전달되었다. 지금 우리는 이 주민리더와 후원회를 조직을 준비하고 있다.

3. 올해 업무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례

(여기서 얻은 교훈은?)

올해 처음 하는 후원과 홍보사업을 하면 많은 실패를 했다.

마스크 모금사업, 저금통사업, 기업후원제안서 제출 등등 이것들이 다 실패한 것 계획을 했으면서도 잘 안 될거라는 나 자신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또한 용기도 부족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거절 당했을 때 내가 받을 상처가 두려웠던 것이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내가 하는 일이 창피한 일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해야 할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가는것인데 내가 먼저 창피해하고 두려워하면 내 대상자 우리지역주민을 내가 어떻게 마주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연대BOOKS 사람책』

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 우리 대상자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과 상처 때문에 미리 겁먹지 말고 우리 대상자와 지역주민을 위해 먼저 인사하고 용기있게 이야기 해야 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4. 업무를 하면서 (혹은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업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건 "사람" 인 것 같다.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 좋은 신뢰가 만들어져 지고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다.

5.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대복스'에 꼭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단 한 가지 적는다면?

사람과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관련된 책을 읽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그것을 하고 있어서 좋다. 그런데 공유뿐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토론하는 문화가 우리가 하는 일에 가장 기초적인 사람의 공유를 통해 사람의 가치를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서 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대복스"와 꼭 함께하고 싶다.

진정 명희

1. 연대복스를 통해 내 업무/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우선 올해 연대복스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 짧은 기간 함께 했지만 연대복스를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연결과 연대"이다. 모임명이 이 모임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 준다. 자원개발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맡고 막막할 때 연대복스가 큰 힘이 되어 주었는데, 서로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연대복스라는 공간 안에서는 연결됨으로 하나 되고, 아낌없이 내어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연대의 힘을 보여준다. 내가 받은 감사를 업무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참 특별한 모임이다.

2. 올해 내가 업무에서 짚었다고 생각한 사례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 뿐 아니라 복지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모든 복지관들이 그렇겠지만 이용자와 가족에게 이전과 다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민과 시도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코로나로 인해 첫 휴관과 비상대응체제로 운영을 하게 된 시기,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직원들의 고민과 시도를 돕고자 작은 포럼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장애, 인권, 심리, 환경 등 소주제별로 직원이 직접 강사가 되고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직원들의 사고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올해 진행한 직원 교육 중 가장 큰 만족을 이끌어냈고, 코로나 첫 휴관 시기를 유의미하게 보낸 기획업무였다.

3. 올해 업무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례 (여기서 얻은 교훈은?)

본 질문을 통해 위드 코로나시대를 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게 된다. 사례라기보다는 울 한해는 많은 업무 영역에서 코로나로 인한 제약이 많았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행사가 집합행사이다 보니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이유보다 할 수 없거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았다. 나 스스로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돌아보게 된다. 무엇이 가능할까? 입지로부터 업무를 바라보고 현재의 제약을 뛰어넘는 고민과 도전이 필요한 것 같다.

4. 업무를 하면서 (혹은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당사자에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

요즘 일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나고 생각하는 말이다. 사회복지의 근간이기도 한 이 글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실천을 살필 수 있어 참 좋다.

5.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대박스'에 꼭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단 한 가지 적는다면?

지금도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럼 여기 연대박스로 오세요. 어린 시절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 착한일 하며, 내가 갖고 싶은 선물 가져다 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기억들 있으실거다. 연대박스 사람들은 내게 산타클로스 같은 분들이다. 지금도 내 삶에 꿈과 희망을 안고 싶다면 연대박스에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춘기 은하

1. 연대박스를 통해 내 업무/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연대박스에 느즈막히 함께 하게 되어서 관점의 변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두 권의 책을 함께 나누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일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가?와 같은 “왜”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다시금 던져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고 또 연대박스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으며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는 내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 올해 내가 업무에서 잘했다고 생각한 사례

벌떡 떠오르지 않는 이 현실에 고개를 숙입니다^^:::

연 2~4회로 발행되던 기관 소식지를 월간 발행을 첫 단추를 끼운 것을 이야기 하고 싶네요.

그 간의 소식지의 강정도 많았습니다. 주민편집 위원을 구성하여 함께 글을 다듬기도 하고 사업과 지역의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담아내어 읽을거리가 풍성한 소식지였습니다. 그런데 발행의 텀이 너무 길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홍보를 통해 복지관의 존재성과 지역사회의의 상관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 더 자주, 더 가까이,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필요성에 지난 3분기부터 월간 소식지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직은 구성도 부족하고 다양한 배포처를 확보하지 못해 더 나아가길 길이 남아 있지만, 한 달에 한번 나오는 소식지를 핑계삼아(?) 또 한번 마을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3. 올해 업무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례 (여기서 얻은 교훈은?)

실패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도조차 못해 본 일들이 많은 올해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무기력해 진 것 같기도 합니다. '방향성은 잃지 않고 초단기 계획으로 점진적으로 실천해 보기' 마침 어제 기관방문을 갔다가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로 다시 앞으로는 다듬어 가야겠습니다.

4. 업무를 하면서 (혹은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사람다움”

언젠가 책에서 정치는 정의로운의 테두리를 넓히는 일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을 읽으며 사회복지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람다운 삶의 테두리를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기대어 살아가는 때, 나 자신을 발견하고 사람다움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자고 손을 내미는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5.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대복스'에 꼭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단 한 가지 적는다면?

새벽을 상쾌하게 열어내는, 자신의 일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대복스를 통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며 생동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슴이 뛰고 싶다면 연대복스와 함께 해요 ^^

증정 정아

1. 연대복스를 통해 내 업무/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사회복지를 접하고 공부하게 되면서 가졌던 복지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작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가치적인 부분이 아닌 실적과 도표적인 부분에 집착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고 더욱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연대복스를 통해 사회복지가 무엇이고, 후원이라는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보며, 책이 주는 지식들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대부분 취미에 귀결된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 생각했고, 다양한 나눔을 통해 스스로가 알은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연대 복스를 통해 스스로의 편협함을 깨달고 그 편협함을 깨어나가는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2. 올해 내가 업무에서 잘했다고 생각한 사례

저희 복지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상을 만들 때 필요한 이미지들을 순수 제작하여 복지관에 공유를 했습니다. 미미한 재능이지만 그 그림들을 통해 조금 더 복지관만의 시그니처를 발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재능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영상 제작 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잘했다고 생각한 사례입니다.

3. 올해 업무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례 (여기서 얻은 교훈은?)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둘러 진행하고, 불안감에 쌓여 업무와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후원사업 파트를 맡고 있다가, 타 사업단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진행되었고, 그 시기와 맞물려 인수인계 받은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공모사업과 시작을 해야하만 사업들로 정신없이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사업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일단 진행하였으며 충분한 준비과정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에 스스로에게 많은 불안감을 느끼며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불안이 낮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 업무에 영향을 끼쳤고, 자기관리도 전혀 되지 못하게 된 것이 최근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례입니다.

4. 업무를 하면서 (혹은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시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성이 게으른 편이라 성실하려고 노력하는데, 특히 좋아하는 성실해 지려고 여기저기 일을 벌여두고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 자기관리가 전혀 안되었고, 업무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좀 더 시간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 일과 삶 속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5.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대복스'에 꼭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단 한 가지 적는다면?

모금, 후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시선을 공유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는 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비전인화

1. 연대복스를 통해 내 업무/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관계를 중요시하지만, 업무에서만은 뚜렷하게 결과와 성과를 중요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제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연대복스에 참여하면서 일이 아님에도 열심히 활동하고, 본인의 자표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많은 활동가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 사회복지 인생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사회복지 가치와 철학은 있는지... 진정 주인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사회복지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단순히 상사들이 좋아하는 Yes맨, 열심히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직업의 시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대복스 활동에서 책을 통해, 사람을 통해.... 연대와 공유, 그리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사회사업 첫 마음을 떠올리고 지금을 성찰하며 사회사업 근본을 탐구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 올해 내가 업무에서 **잘했다고 생각한 사례**

올해 7월 서울시 청년청 및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지역반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사례관리 영역 안에서 일부 지원되었던 고립청년! 도봉구청의 복지정책과와 교육지원과, 7개 동주민센터,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도봉구청신건강복지센터, 청년단체들과 연대하여 도봉구 내 고립청년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고립청년들의 상태와 욕구에 따른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인감으로 인해 발굴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고립청년들! 저희 복지관의 힘만으로는 원활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선택한 것이 바로 여러 유관기관과의 연대였던 것 같습니다. 13개 이상의 기관이 모여 연대의 힘으로 함께 추진하게 될 본 사업을 통해 고립청년들이 사회로 한발자국씩 내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3. 올해 업무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례 (여기서 얻은 교훈은?)

앞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접근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믿음 하에 올해 반려견주와 비견주가 함께하는 주민주도의 동물 활동을 통한 지역 내 반려견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외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진행했었습니다. 결론부터 공유하면, 현재 참여주민의 조직화에 실패하여 사업을 중단하였고, 일부 지원금을 반납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실패한 원인으로 팀장으로서 적절한 업무배치(담당자가 반려견을 키운 경험이 없음)를 하지 못했던 것 같고, 활동 시기에 맞는 수퍼비전 또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역 사회와의 자원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고, 주민분들도 개별화하여 만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사는 혼자서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팀장과 동료들이 함께하며 지원해야하고, 외부적으로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연대의 중요성을 2021년 사업에는 꼭 녹여보아야겠습니다.

4. 업무를 하면서 (혹은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끈질긴 체력, 무한 책임감으로 '치열함이 없으면 젊음이 아니다!' 라는 개인 슬로건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불타는 열정! 비록 사업이 실패하거나 실적이 저조 하더라도 후회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 이는 사회복지사의 성장은 물론 또 다른 사업 수행의 튼튼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5.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대복스'에 꼭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단 한 가지 적는다면?

사회복지를 하다보면 참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고민 하지 말고, 연대복스에 공유해주세요! 각기 다른 경험치를 가진 멋진 동료들이 자기 일처럼 피드백을 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연대복스의 힘!!

연대하여 성장하자!

열정계명 댄스현경 든솔정선 여운민지
도전태준 토리선아 어질현기 함께누리
하이예나 불꽃선영 진정명희 춘기은하
긍정정아 비전인환 기회보경



연대BOOKS

사람책
모임